

‘盧 NLL대화록 삭제’ 정국 핫이슈 재부상

검찰 수사 발표... 새누리 “사초실종 확인... 문재인 책임져야”

盧측·민주 “초안 삭제했을뿐 오히려 대화록 존재 입증된 것”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제2차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삭제했다는 검찰 수사 결과 발표가 나오면서 대화록 삭제 주체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2일 ‘노무현 정부’ 청와대의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인 이지원(e-知淵)에서 2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등록됐다가 삭제된 흔적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또 노 전 대통령의 사저에서 운영하던 ‘봉하 이지원’에는 국가기록원으로 보관하지 않은 별도의 회의록이 저장된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 회의

록은 삭제된 원본 회의록과 다른 내용이지만 국가정보원 보관본과는 내용이 같다고 밝혔다.

이는 노무현 정부에서 대화록을 국가기록원에 통째로 넘겼으나 이명박 정부가 삭제했다는 노 전 대통령 측 인사들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결과여서 논란이 일고 있다.

당장 새누리당은 민주당과 친노(친노무현) 진영에 맹폭을 가했다. 특히 민주당 문제의 의원의 책임론을 일제히 제기했다.

대화록 열람위원이었던 황진하 의원은 “대화록을 삭제한 것은 노 전 대

통령이 임명된 전 국방위원장 앞에서 공약적 회담을 했기 때문”이라면서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인 문 의원은 대화록을 분명히 이관시켰고, NLL포기 발언이 나오면 정치를 그만두겠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김태홍 원내대변인도 “정치 생명을 걸겠다며 사초 폐기를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사실을 호도한 문 의원은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정치적·도덕적·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노무현재단은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더 이상 은폐나, 사초실종

이니 하는 주장의 근거는 없어졌다”고 밝혔다. 재단은 “검찰 발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정상회담 대화록을 발견했다는 것으로, 대화록이 당시 청와대 이지원과 국정원에 모두 남겨졌음이 확인됐다”면서 “이번 검찰 발표를 통해 대화록은 명백히 존재한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단은 “검찰 발표에 따르면 초안 상태에서 삭제된 것을 발견해 복구하고 수정된 최종본도 함께 발견했다고 한다”며 “최종본이 만들어지면 초안은 삭제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삭제, 복구 등의 표현으로 의혹의 대상인 것으로 발표하고 일부에서 대단한 의혹이 있는 것으로 몰아가는 정략적인 행태는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내용

을 잘 모르니 알아보고 말하겠다”며 “나중에 적절한 사람이 적절한 방법으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긴급 원내대책회의 소집 후 “국면전환음이 의심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김관영 수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당시 정상회담 대화록 작성 및 보관에 참여한 참여정부 주요 관계자들이 검찰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갑작스레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은 최근 잇따른 국정 난맥상에 대한 국민전환음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사초 실종은 국가 문헌”이라며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가 라운지

주승용 “노인의 날 공휴일로 지정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장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노인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국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12.2%인 613만여 명이고 이 같은 추세라면 2025년에는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노인의 날 공휴일 지정은 고령화 사회 노인 문제 해결에 더욱 관심을 갖자는 것이

다”고 말했다. 그는 또 “10월2일 노인의 날이 공휴일로 지정되면 10월3일 개천절까

지 이틀간 연휴가 가능해 자녀가 부모를 모시고 여행을 하는 등 효친 사상과 미풍양속을 확산시킬 수 있다”며 법안 준비 배경을 설명했다.

배기운, 농림축산 관련 벌금형 정비 개정안 발의



민주당 배기운 의원은 경제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벌금형을 정비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29건의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배 의원에 따르면 “현행 ‘산림보호법’의 벌칙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돼 있으며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농어업재해대책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경제현실과 동떨어져 있는가 하면, 징역형과 벌금형 간의 불일치로 제도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라며 “국가

권익위원회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자체규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000만원’에 맞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배 의원은 “다른 상임위 소관 법령까지 살펴볼 때 모두 209건의 법령의 벌금형 규정이 비현실적”이라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안이 아닌 180건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전병헌 원내대표를 통해 해당 상임위 의원별로 배분해 발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김상희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2일 오후 국회 정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본회의에서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채동욱-여성 정치인 부적절 관계’와 관련, 여성 정치인 전체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김 의원의 사과와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연남뉴스

민화협 새 의장에

친박 좌장 홍사덕

친박(친박근혜)계 좌장인 홍사덕 전 의원이 민간통일기구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의 새 대표상임의장에 선임됐다.

민화협은 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의장단회의를 열고 홍 전 의원을 임기 2년의 새 대표상임의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홍 의장은 임기 1년을 남기고 사의를 표명한 김덕룡 전 대표상임의장의 바통을 이어받아 민화협을 이끌게 됐다.

홍 의장은 국회 부의장을 지낸 6선 의원 출신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꼽힌다. 2007년과 2012년 ‘박근혜 경선캠프’에서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으며 대통령 만들기에 핵심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가 제기된 지 하루 만에 “당과 박근혜 대선 후보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전직 탈당을 선언하면서 사실상 정계를 떠났다. 올해 1월 13일에선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를 포기했다. 홍 전 의원의 복귀를 계기로 친 박 원로들의 정계 귀환은 완성되는 모양새다. 박 대통령 원로 자문그룹의 핵심들은 강창희 국회의장에 이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발탁으로 권력 중추를 차지한 데 이어,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는 화성갑 재보선 공천이 유력한 상황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황교안 법무장관 해임건의안 제출키로

‘채동욱-여성정치인 부적절 관계’ 발언 김진태 의원 윤리위 제소

민주당은 황교안 법무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키로 하는 한편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여성 정치인의 부적절한 관계를 언급했던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고 징계안을 제출할 예정

이다. 민주당은 1일 오후 늦게 의원총회를 열어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에 대한 의입행사 및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 파문과 관련해 황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키로 결의하고 제출시기

는 원내지도부에 일임했다.

헌법 63조에 따르면 국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및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해임건의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하며 이 시간 안에 표결하지 못하면 폐기된 것으로 간주된다.

또 민주당 의원 45명은 2일 성명을 내고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에 대해 “국회의 신뢰와 품위를 훼손했다”며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당 여성 의원들도 김 의원이 여성 정치인 전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고 징계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누리 화성갑 후보 ‘서청원 공천’ 놓고

재보선 ‘朴心’ 논란

새누리당의 10·30 재·보궐선거 공천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의 출마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경기 화성갑다. 올해 1월 13일에선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를 포기했다. 홍 전 의원의 복귀를 계기로 친 박 원로들의 정계 귀환은 완성되는 모양새다. 박 대통령 원로 자문그룹의 핵심들은 강창희 국회의장에 이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발탁으로 권력 중추를 차지한 데 이어,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는 화성갑 재보선 공천이 유력한 상황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문제에 실려있다는 ‘소문’이 여의도 안팎에서 폭넓게 회자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는 점, 이에 대해 공천 실무를 책임진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은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며 부인했고 청와대 관계자도 “전혀 들은 바 없다”고 손사래를 치지만, 화성갑 공천 확정 시기가 다가오면서 ‘설(說)’을 ‘팩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는 짙어지고 있다. 서 전 대표는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때 캠프 상임 고문을 맡았으며 이듬해 18대 총선에서는 낙천한 친박(친박근혜)계 인사들로 친박연대를 출범시킨 박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꼽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혁신도시 · 강변도시 남다른 부동산 투자법!

매물을 팔려는데? 매물을 사려는데?!

고액 여러분의 고민을 **솔로몬 부동산**이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상업용지 / 근생용지 / 점포주택지 / 주차장용지

바로 지금이 기회!!

전국 혁신도시 전문 **나주 솔로몬 공인중개사**

☎ 061-333-7077, H. 010-5587-3080 / 010-3505-8005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54-32(우정사업본부 후문 방향)

선암동 전원 주택용지 분양

자연과 함께 하는 **어등산 빌리지**

광산구 선암동 414-17번지 일원
분양면적 **7008㎡(87가구)**
분양가격 전용면적 **평당 130만원**
각 필지면적 **약150평~420평(분할·합병가능)**
현 토목공사 **90%진행중**

70% 분양완료!

단지설명 **자연속 힐링 주거단지**

1. 분양면적은 전체가 쓸 수 있는 **전용면적**입니다.
2. 각 필지별 **상·하수도** 관련 연결공사 **완료**
3. 각 필지별 **건축허가 완료**(각종세금 납부완료)
4. 각 필지별 **6m도로** 접

찾아오시는길 선운사구 영광 → 어등산골프장 → 호남대학교 → 어등산 빌리지

☎ 문의 222-4994, 010-2632-5659
금당부동산은 가도건설 전속중개사무소입니다

금당공인중개사

매매·교환·설계·시공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투자·감정가 이하

- 총정로5가 버스도모점 대지777㎡(235) 공시지가 17억7천 선 오피스텔, 상가개발적합 9억6천
- 북구 유동 상업지역 대지411㎡(124) 2층건물 99평 공시지가 2억8200 매도3억
- 할평 영업 절되는 여관과 접한 2층 주거지 땅 504평, 땅에는 생활주택적합 대출4억 매도10억5천
- 북동 고을센터 옆 상업지64평 원룸적합 1억6천
- 계림동구도철건물 대지 542㎡(164) 건평 1200평 요양시설·병의원·한의원·사무적합 18억
- 대인동 소방도모점 상업지역 786㎡(238) 오피스텔·생활주택 등 적합 9억5천

매도·임대

- 매도, 수기동 상업지역 705㎡(213) 원룸·투룸·쓰리룸 92개 허가, 주택기금12억가능, 대출3억 매도7억8천
- 매도, 목포대학 인근 원룸 84개 허가난 땅 476평 목포대학 확장으로 사업성 좋음, 대출2억8천 매도5억6천
- 매도, 신안군 지도읍 솔로스테이중·엘도리도 가능, 바다가 보이는 별장용APT 모임이나 회사의 휴게시설에 적합, 30평22세대 41평5세대 대출은 8천에서 1억가능, 30평은 1억3900만원 41평은 1억8500, 임대도 가능
- 임대, 신항동 보건대학 부근 대로면 주택전시관 1층167㎡(50) 보증금5천에 월200선 임대, 조건은 조정가능
- 임대, 송촌동 (구)장군관사에 신축중인 호텔급 시설의 생활주택 10평형 기준 전세 1000에 월40선에 임대해, 10월초 첫 입주 지하철 상층역에서 6분 거리
- 임대, 송촌동 기도건설의 주택전시관70평 PC방, 미장원, 찻집, 식당 등 다용도 사용가능 분할임대도 가능, 보증금 5천에 월200선 가능

☎ 문의 222-4994, 010-2632-5659
금당부동산은 가도건설 전속중개사무소입니다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주)다와부동산컨설팅부, 매수신청대리업체(법원인가) 근린시설임할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무료상담)

근린시설

- ▷ 동구 지산동 준주거 3층근린 대지241㎡ 건평307㎡ 감정74억
- ▷ 광산구 쌍암동 일반상업 숙박시설 대지1760㎡ 건평 2821㎡ 감정746억 최저가72억
- ▷ 나주시 송월동 상업지역 6층상가 대지545㎡ 건평 2309㎡ 감정713억 최저가77억

단독주택

- ▷ 북구 장동동 전원주택 대지763㎡ 건평137㎡ 감정71억8천만
- ▷ 북구 유암동 2층단독주택 대지149㎡ 건평161㎡ 감정71억 최저가77천만
- ▷ 나주시 남내동 2층주거 2층주택 대지319㎡ 건평297㎡ 감정72억3천만 최저가71억3천만

공장및창고

- ▷ 북구 대촌동 창고및대지 토지2800㎡ 건물303㎡ 감정711억 최저가78억
- ▷ 광산구 용동 일반공업 2층공장 토지3305㎡ 건물2711㎡ 감정730억 최저가717억
- ▷ 강진읍 송덕리 냉동,저온창고 토지33650㎡ 건물11762㎡ 감정794억 최저가727억

토지매매

- ▷ 동구 내남동 1층주거 전원주택부지 주거환경최상 대지1750㎡ 상담후 가격조정
- ▷ 무안군 해제면 덕선리 관리지역 전,임야 3642㎡ 매매3,500만
- ▷ 광산구 지평동 자연복지 대지,전 2115㎡ 매매5천만(조정가)

☎ 문의 010-4911-4989 (팩스 062-226-3607)

영천부동산

상가건물 대지·임야 전원주택·묘지

급히 파실분
부동산을 급히 팔거나, 임대를 원하시면 저희 영천부동산으로 오십시오. 빠른 시일내에 매매·임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보장
매수자·매도자·매도 물건에 대하여 비밀 보장하여 드립니다.

▶ 전념하고 건너편 ◀

영천공인중개사
010-4610-3763
062)222-5105